청년과 변화의 정치

- How can you not be romantic about Politics

-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 우리는(한국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 민주정? 민주주의? Democracy?
- 민주주의는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 그래서 민주주의는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 민주주의는 내부에 어떤 이념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적 결사체들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함(민주주의의 틀에 내용을 히틀러의 주장으로 채우면 나치즘이 되는 것임)
- 민주주의는 다른 가치/의견/세계관이 정부를 운영할 기회를 갖는 것, 이를 가리키는 말이 '대안 정부' (alternative government)(야당이 있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의미함)

자율적 결사체와 갈등

- 그럼 의견은 무엇으로 조직되는가? : 갈등! 세상에 싸움(갈등)만큼 의견을 쉽게 강하게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민주정치 :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 갈등을 다루는 갈등체계
- 한 사회 주요 갈등의 최종 집합체를 정당이라 부를 수 있음, 한 사회 주요정당의 숫자는 그 사회의 주요갈등의 숫자. 지금 한국은??
-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는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음. 다양한 결사들이 결집해서 조직을 구성. Ex.) 노동조합, 협회, 시민단체, 경영단체
-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갈등의 치환'과 '자율적 결사체의 미약함'

민주주의와 '정치가', '활동가'

- 정치인은 '연예인'도 콜로세움 안의 '검투사'도 아님
- 현대 민주주의는 사회의 여러 부분을 대표하는 '부분이익'을 대표하는 후보와 정당들이 갈등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익의 정의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합하는 체제
- 따라서 정치가는 민주주의 안에서 대표하는 '부분이익'이 명확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다른 부분이익들과의 '경쟁'과 '조율'도 확실하게 됨(책임성의 문제)
- 정치인은 '권력'을 다루는 사람. 권력은 위험하므로 그만큼 정치가는 중요한 존재임
- 정치인은 더 나은 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평등한 관계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
- 정치인이 시민들과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권력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를 '정치인(政治人)'이 아니라 '정치가(政治家)'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임. (관종과 정치인의 차이는? 활동가와 정치인의 차이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활동가'(2)

-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경쟁'하고 '조율'한다는 것. 경쟁할 때 정치가는 자신의 부분이익에 철저하게 편협한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조율'할 때 정치가, 활동가는 다른 부분이익의 입장에도 설 수 있어야 함. 미국의 사회운동가 사울.D.알린스키가 언급한 분열적이자 통합적이어야 하는 존재(조직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결정권자,부서장 등)의 역할과 비교해서 이해해보면 좋음)

- 정치가, 활동가의 기본 소양 : 부분이익에 대한 전문성, 종합적 사고능력, 설득과 조율의 능력(말과 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 균형감각

- 정치가, 활동가에게 필요한 덕목 : 유머(거리두기), 상상력, 호기심, 침착함, 책임감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 민주주의 정치가 결국 '이견'을 존중하는 위에 서있다면 민주주의 정치에서 갈등은 문제의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는 과정
- 따라서 정치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
- 날것의 분노를 표출하고 관성화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어야 함
-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민들과 정치인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능력
- "경험의 상세한 부분에까지 파고들지 않은 개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미사여구에 불과. 25만명의 죽음과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차이"
- '딜레마'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숙명과도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

정치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 막스베버가 말한 정치가의 덕목 : 마키아벨리 – 네체시타(불가피성).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가장 왜곡되어 있는 개념

- 두 가지 윤리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모순관계지만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가(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해악만큼 신념 없는 정치도 사회에 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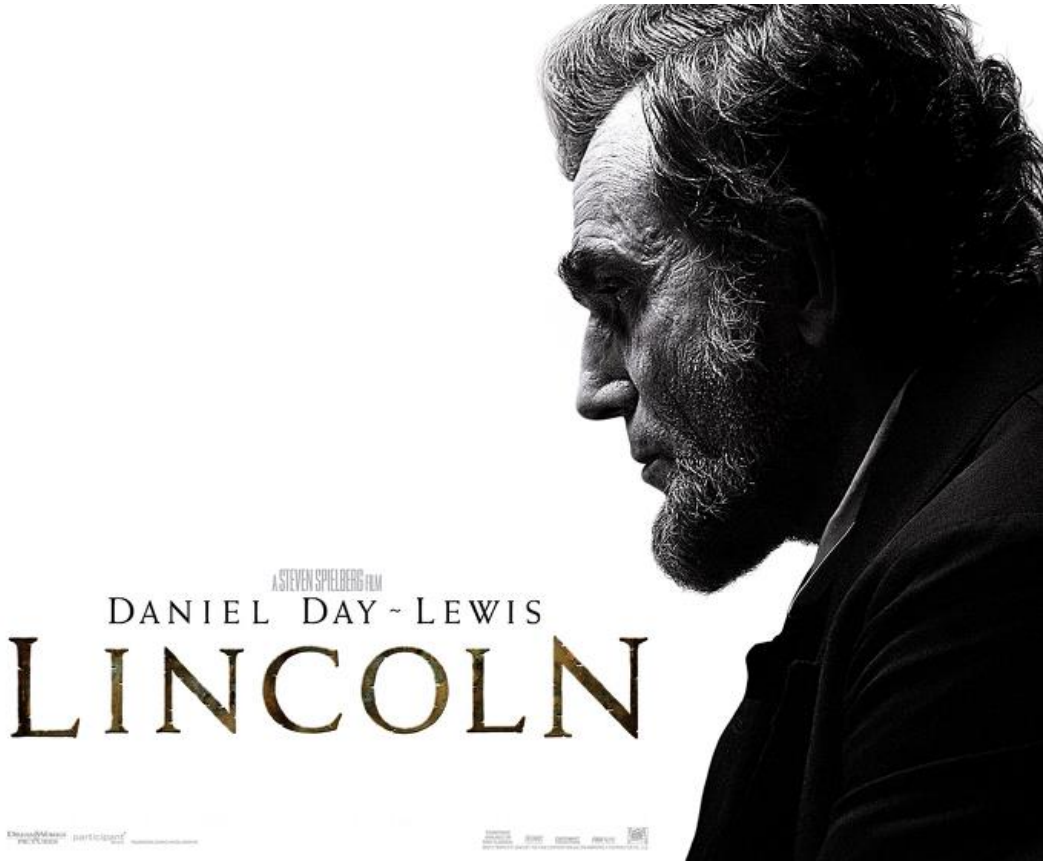
- 알린스키가 인용한 '역사의 맥락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함은 미덕이 아님'

- '도덕이라는 천사의 날개를 이불로 잘 덮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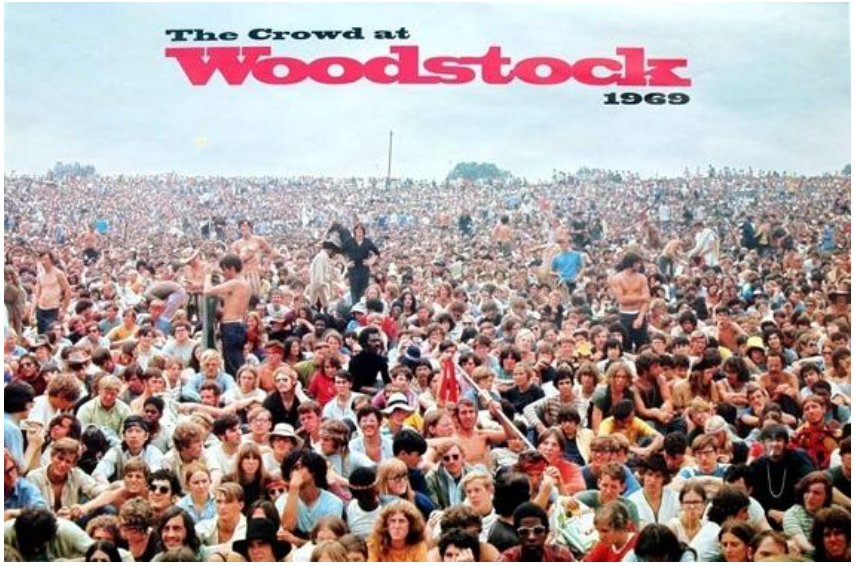
링컨의 고뇌와 책임윤리

노예제 문제로 불거진 남북전쟁의 말미 전쟁과 문명의 진보 사이에서 링컨의 고뇌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



1960년대 미국, 혁명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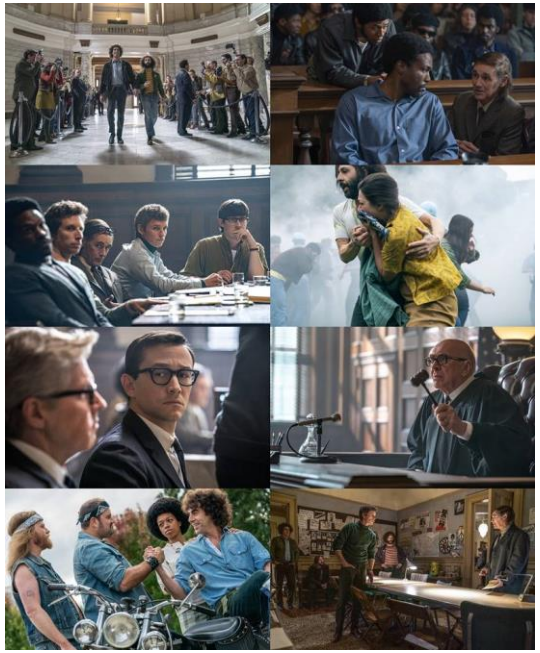
-운동의 열기와 성장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Hard hat, 인종차별, 반전, 젠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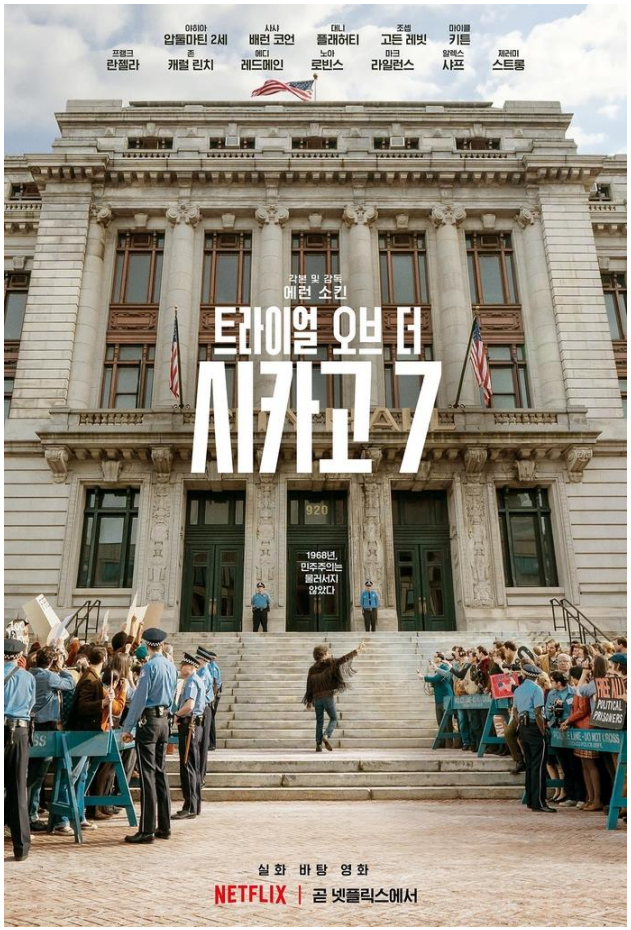
-로버트 왈저(저작 : 사회운동은 이렇게), 알린스키 등 당시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리더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내부의 극좌파 문제 지적

로버트 케네디와 청년들의 절망

-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속에서 미국 진보파의 희망으로 등장한 로버트 케네디
-정치참여파와 운동파의 분열(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참조)
-노동운동, 반전운동, 민권운동등의 통합
-이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 폭력사건으로 이어짐

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68년 민주당 전당대회 폭력사태

-미국 사회운동의 분열, 청년들의 절망

-미국 정당공천 시스템의 변화(이후 개방형 경선의 역설로 귀결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스티븐 레빗츠키)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은 이 전당대회 폭력사건 이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책

무엇을 할 것인가?

- 첫째 통곡의 벽을 쌓고 너 자신을 위로하라. (종교, 마약, 공동체)
- 둘째, 미쳐버린 후에 폭탄 투척을 시작하라. 하지만 그 방법은 단지 사람들을 우파로 돌아서게 만들 뿐이다. (웨더맨)
- 셋째. 교훈을 얻어라. 고향으로 가서 조직화하고, 힘을 모아서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너희 자신이 대의원이 되어라. – 알린스키

일본 전공투학생운동과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이야기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희망

‘헤럴드 워싱턴’은 변호사 출신으로 일리노이 주의원과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거쳐 1983년 시카고 시장에 당선됐으나 1987년 11월 25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시카고 최초의 흑인시장, 오바마의 롤모델

시카고의 알린스키 조직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던 오바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치만이 유일한 희망은 아니지만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음. 좋은 정치와 좋은 운동은 아주 좁은 오솔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가깝지만 또 별도의 길 이어야 함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나는 불경하다

- 이 책을 쓴지 한 세대가 지났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일은 기괴하고 분열적인 경험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튀어나오는 성나고 도전적이며 무모하고 불손한 청년은 아주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시로 혼잣말을 했다. "진정해라 얘야. 너는 1,000대 1의 배당에 걸고 있는거야. 그것도 확률이 반반은 된다는 것처럼. 네가 경험을 더 쌓으면 그땜 분간할 수 있겠지. 배당이 100대 1은 넘을 수나 있을지 말이야."

- 과거의 대들보는 묘비가 되었고, 살아남은 것들은 의심을 받고 시험대에 올랐다. 환멸은 불경을 낳았다. 분노에 찬 불경한 세대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중요한 유산도 불경이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불경하다. 열정과 분노가 빠진 소위 객관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경멸하고 거부한다.

- 나는 변했다.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분노로 식히고, 직관적인 불경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반대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의를 제기하고, 숙고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소크라테스 금언의 참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나는 변했다.행동,반성,본석, 검증, 종합의 과정을 통해 나는 생활에서 경험을 추출하는 법을 배웠다.

- 내가 이 책을 썼을 때의 소망과 꿈은 아직도 예전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다. **나는 내 청춘을 배반하지 않았다.**